

다니엘 가족의 삶

2025년8월



시리아에서의 삶

다니엘은 시리아에서 큰 전자제품 매장을 운영하며 할머니를 모시고 아들 카스바, 아내와 함께 비교적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시리아 기독교인입니다. 시리아는 다수의 인구가 이슬람 신도들이지만 5% 미만의 소수의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고, 결국 다니엘은 2012년에 가족들을 데리고 시리아를 떠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레바논 난민촌에서의 삶

시리아 전쟁이 끝나면 곧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육로를 통해 레바논 난민촌에 도착했습니다. 난민촌의 삶은 매우 열악했고, 특히 연로한 할머니의 건강이 점점 더 악화 되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건강이 나빠졌고,

하나 밖에 없는 아들 카스바는 한창 학교를 다녀야 할 나이에 난민촌에 방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끝날 것 같은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시리아로 돌아가는 길을 포기하고 유럽으로의 난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으로의 난민을 신청한 대기자가 수만명이었기 때문에 다니엘 가족에게 차례가 온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은 기도하고 또 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기적이 일어 났습니다. 노모의 건강을 우려한 난민촌 본부에서 다니엘 가족의 프랑스행을 확정 해주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삶

2018년 다니엘은 가족과 함께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 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도착 후 몇개월 동안 파리에서 대기를 거친 후 비로서 툴루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했던 프랑스에서의 삶은 레바논 난민촌에서의 삶에 비해 훨씬 좋았지만 여러가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한번도 써보지 않았던 프랑스어를 배우야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 다니엘은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모든 것을 무료로 지원하는 프랑스의 난민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적인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영주권도 받았고, 다니엘의 아내는 프랑스 유치원 보조 선생으로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 카스바

다니엘에게는 2002년생 외동 아들 카스바가 있습니다. 시리아를 떠나서 레바논 난민촌에 있는 6년 동안 정상적인 학교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와서는 다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프랑스 학교를 다니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대와 기도에 부응해서 아들 카스바가 지난 6월에 치룬 프랑스 고등학교 졸업시험(바칼로레아)에서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레바논 난민촌에서 6년동안 학교 생활을 하지 못했고, 또 프랑스에 와서는 전혀 새로운 환경과 언어를 익히며 공부했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가족은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난민사역

프랑스에서의 난민 사역은 다니엘과 같은 이들의 삶을 함께 도우며 이들과 어우러져 기쁨과 슬픔, 아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2018년 부터 현재 4가정의 난민들이 툴루즈에 정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난민들을 받아 들이고, 이들의 삶을 도우며 함께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의 끝 자락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전할 소식은 많은데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소식 전하지 못하여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 드립니다.

1. 다니엘 가정의 안정과 대학에 입학하는 카스바가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2. 9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툴루즈 한인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3. 프랑스 내 난민사역이 더 확장 될 수 있도록

2025년 8월24일 **안평화** 선교사 올림